

관상조류 구입법

방 예 식

<한국 관상조류 연구원장>

1. 初心者와 入門鳥

초심사육(初心飼育)자는 첫째, 품종선택과 구입방법 문제에 봉착되리라 생각된다. 조류중에서 관상(鵞鵠) 조류가 제일비싼편에 속하며, 또 순종 종금(純種 種禽)을 마음대로 쉽게 구입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의 사드(飼鳥) 분포사정에 비교한다면, 수요(需要)가 절대적으로 우위에서 있음으로 더욱 어렵다고 보겠다.

초심자가 종금을 구입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결정해야 할 첫째의 쫓점은 어느품종을 입문조로서 결정해야 하느냐는 문제가 되겠다. 사육과 번식(飼育繁殖)에 대체로 용이하면서, 각 분야별에 대표적인 입문조로서는 대략 다음의 순위가 무난하다고 보겠다.

금계(金鷄), 백한(白閑鳥), 청공작(靑孔雀), 황금계(黃金鷄), 산계(山鷄), 은계(銀鷄), 백공작(白孔雀) 등등의 순위 범위내에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윗 새들은 사육이나 번식법이 거이 확정되어있고, 그 수량도 제법 있는편에 있으니 좋은채를 구입할 수가 있다. 만약 희귀조(稀貴鳥)의 좋은 종금을 구입하려고 할때, 그 마음자세는 한마디로 말해 매우 불안스러운 일이라 생각된다. 그 이유는 국내의 희귀조의 좋은 종금(種禽)이란 아직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고, 그 번식법이 계속 연구중인고로 초심사육자에게 훌륭한 종금이 쉽게 입수되기란 정말 어려운

형편이다. 더 나아가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속임수의 주 원인을 조사하여보면, 없는 것을 갖고자하는 욕심에 그 원인이 있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화 하려는 욕망에서 일어나는 것 인 줄 믿는다.

그리고 아무리 우수한 체격 체형이고 아름다운 깃털을 가졌다 할지라도 질병에 오염 또는 보균되어 있거나 생식기에 염증을 가지고 있는 새가 아니라는 보장은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새를 믿는 것 보다 상대방, 즉 종금사육가의 인격과 권위를 믿을 수 있을 때 비로소 믿게되는 것이다.

또 구입면에 있어서 어떤 초심자는 희귀조의 알을 나누어 주기를 바라는 것을 가끔 볼 수가 있다. 그것은 구입하고자 하는 모험밖에 되지 않을줄 믿는다.

전문 번식사육의 입장에서는 알을 판매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냉정하게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볼때 희귀조의 종란은 1년간에 얻을수 있는 수량이 불과 20~30개 정도 밖에 안되는 데, 모두 판매하여도 새끼 2쌍 가격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누구든 영리사육자라면 팔수가 없게 될 것이다. 또한 초심자가 알을 구입하였을때 과연 그 얼마의 수확을 생각할 수 있겠으며, 그 결과가 무엇이겠는가 중요한 문제다. 서로간에 있어서 그 알의 유정도(有精度)에 대한 보증도 없었을 것이고, 그뿐아니라 은계와 금계의 알, 금계와 차보의 알, 공작과 칠면조의 알, 백한과 쇠닭의알 등등의 감식은 외모와 크기로서는 구별하기가 매우 어려운것

이 그 하나요, 또 부화가 잘 안되는 미묘한점이 많다. 이와같이 종란(種卵)을 구입하고자 하는 분의 경제적 사정과 취지는 이해하겠으나, 그에앞서 좀더 관상조류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요망되는 바이다. 알(卵)은 그의 여러가지 미묘한 방법이 개재될 수 없으므로 가능한 구입하지 말고 가격은 고사하고 생후 3개월 이상된 새끼를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가장 상책이라고 생각된다. 더 한가지 부언하자면 갓 부화된 어린 새끼를 입수하고자 하는 분들도 많은데 이것도 조건이야 어찌되었든간에 도리어 경제적인 피해와 그 새끼의 생명을 위하여 삼가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믿는다. 회귀조의 새끼라고 기르기가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초심자로서는 위와같은 경우의 통제를 살펴 볼때 성공한 예는 극히 드물다고 본다. 특히 한 두 마리의 초생추를 입수하여 성공한 예는 극히 적고, 도리어 10~20마리의 많은 수를 입추하여 육추(育雛)에 성공한 예는 그런대로 가끔 있는 편이다.

관상조류의 육추비법은 첫째, 사랑 즉, 애조심(愛鳥心)과 둘째, 인내와 셋째, 지식에 있다. 그럼으로 다음의 설명을 고려하여 애조정신에의 즐거움과 정서를 느낄 수 있는 착실한 사육가가 되기를 바란다.

2. 繁殖者와 種禽選擇

영리번식을 목적으로하여 종금을 선택한다는 것은 경영상에 심각한 문제가 개재된다고 생각된다. 각 사육자의 사육경험과 조류지식에 의하여 그 기준도 많이 다를 것이며, 그 방법도 상이하리라 믿는다. 그러나 사육의 시발점에서 소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문젯점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될줄로 믿는다.

- ① 번식력이 우수한 '종류일 것.
- ② 항병력이 강한 종류일 것.
- ③ 금사에 잘 익숙되는 종류일 것.
- ④ 전망이 밝은 종류일 것.
- ⑤ 육추력이 강한 종류일 것.
- ⑥ 더위, 추위, 환경등에 강한 종류일 것.

⑦ 수익성이 높은 종류일 것 등으로 분류하여 생각할 수 있겠다. 그리고 종금선택의 결정 조령(鳥齡)의 선택 사육기술의 협력 등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실지로 국내의 회귀조류는 자기의 인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종류와 그 전망이 화려질 종류, 이렇게 전망의 양부(良否)가 없다고 단정키 어려운 것이다.

이것은 조류의 계통뿐만 아니라 어느계통의 기업품이라도 발전선상에 있는 분야일 수록 더 심할 수가 있다고 본다. 그럼으로 유조(幼鳥)에서 부터 훌륭한 종금을 만들려면, 그 기간은 거의가 단 2년에서 3년정도 걸린다. 공작류 같으면 최소 4~5년을 참아야된다. 물론 공작도 생후 3년이되면 첫 산란을 하지만 10~15개 이내에 불과하고 수정율과 부화율도 극히 저조하여 새끼를 얻을 수 있는 확율은 거의 체험과 연구사육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다.

그의 급계, 백한, 황금계, 은계, 긴 꼬리평 등의 경우도 소수를 제외하고는 훌륭한 종금이 되려면 평균 2~3년이 소요된다. 이와 같이 번식용의 종금은 초산란기(初産卵期)를 넘겨 두번째를 맞이하는 산란년(産卵年)부터가 번식용의 종금이라고 간주하는 것이 정확하다. 위와같이 훌륭한 종금이 입수기간이란 긴 세월이 흘러가면서 서서히 이루어지는 것에 비하여, 그 순간에 일변할 수 있는 각 품종별 인기의 척도(尺度)란 영리적 사육가의 입장에서 무시할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종류 선택과 사육능율의 결정도 결정이겠지만, 종금구입의 잘 잘못은 재론할 필요도 없이 성패의 중요한 큰 원인이 되는 것이다. 경제적 실정이 어려운 환경에 처하여 있는 가정에서는 단순히 완상(玩賞)용으로 기른다는 것은 말이 안될 줄 생각된다.

그럼으로 대개 취미를 겸하여 정서를 즐기면서 부업(副業)으로 사육하는 경향의 애조가가 많다. 이것이 실정에 맞는 애조가는 손쉽고 가장 현명한 부업에의 길이라고 본다.

관상조류는 어디까지나 그 수량이적고 고가(高價)임으로, 잘못 구입하거나 상애(방愛)가 좋지 못하여 교환 또는 재구입을 하려면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될 우려가 농후하다. 그럼으로 애당초부터 주의하기 바라며 가능한 쉬운 입문조(入門鳥)에서 부터 착수하여 나가는 것이 안정스럽다. 만약 경제적 도움을 얻기 위하여, 없는 돈에 노력까지 투자해서 시작한 사육의 결과가 종조의 선택 잘못으로 인하여 허무하게 죽이거나 산란불가능의 폐조(廢鳥) 및 노조(老鳥) 등 당초 계획과 바라던 희망과 꿈이 서글픔으로 끝난다면 같은 애조가의 심정으로 안타까운 동정 금할수가 없을 것이다.

그럼으로 전문사육가의 조언도 필요하겠지만, 우선 본 연구원에 문의하여 지도를 받아 분양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고 가장 빠른 첩경이라 하겠다.

種禽選擇의 要素

1. 血 統

혈통의 중요성은 전번에 누누히 설명하고 강조한 바가 있어 재삼 상기해 주기바라며, 여기에 중복을 피하겠다.

2. 鳥 齡

새의 성육(成育) 기간을 조령(鳥齡)이라 부른다. 즉 조류의 나이이다. 종금조류의 경우를 대별하여 본다면 그 부모의 조령과 종금의 조령으로 나누어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조령은 초생추(初生雛), 유추(幼雛), 중추(中雛), 성조(成鳥), 어미 노조(老鳥) 외에 폐조(廢鳥) 등으로 분류하여 설명하겠다.

(1) 초생추(初生雛)

부화 1일령에서 45일령 사이의 어린 새끼를 말한다. 자가 번식한 새끼를 종금으로 선택할 경우에는 그야말로 훌륭한 종금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유리한 점이 있다. 그러나 초생추의 부화된시기, 건강상태, 혈통, 부모의 조령 등을 감안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한가지 방법은 초생추를 외부에서 구입하여 와서 자가육추하여 종금으로 이용할 예정일 때는 그 새끼에 대하여 자연히 깊은 애착심이 생겨 육

추관리도 용의주도하게 된다. 대개 후자의 경우 초심사육할 사람이 경제적인 이익과, 한편 실제 육추의 체험을 겸하여 몇마리의 초생추를 종금용으로 구입하여 키워볼지도 하다. 그러나 초생추를 사육하려면 첫째, 육추에 필요한 제반준비와 육추의 지식과 기술의 터득이 있어야 한다.

둘째, 갓 부화한 새끼는 자립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외계의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제반 요구 조건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거나 잘못하면, 건강을 해쳐 약해져서 질병에 걸리거나 낙조(落鳥)하는 것이다.

셋째, 여러 계층의 사육관리중 제일 어렵고 까다로운 것이 초생추 때이다. 이런점을 충분히 염두에 두지 않거나 미비한 육추의 준비일 경우는 거의 모험에 불과할수 있는 것일줄 믿는다. 또 몇마리의 육추보다 최소한 10마리 이상의 무리군이 되어야 육추하기가 쉽고, 45일 간이란 기간동안 성의있는 관리가 되리라 믿는다. 그렇지 못하면 거의가 처음에는 성의있는 관리를 하다가 종말에는 체험이난 취미에 불과하여 실패하는율이 높은줄 안다. 그럼으로 어미새를 사육한 경험이 없는 사람이면 갓 부화한 새끼를 싼값이라고 구입하여 종금으로 이용하겠다는 생각은 될수록 삼가는 것이 좋겠다

(2) 유추(幼雛)

생후 45일령에서 90일령 사이의 새를 유추 또는 새끼라 부른다. 보통 이시기부터 분양형식을 가지게되어 분양가나 구입가 사이에 약초가 많이 이루어진다. 구입자 입장에서 볼 때 몇가지 주의할점은 첫째, 암수의 감별이 곤란한 시기이다(금계·황금계·은계 제외). 둘째, 새끼의 사육관리가 좀 까다롭다. 저항력과 면역성이 약하여 기온, 환경, 사료, 질병 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반면 위와같은 주의점이 있으나 유익한 것은 초번식기(初繁殖期)의 새끼를 구입할 수 있다는점과 가격이 다소 싸다는 점이다.

그리고 후반기에 낳 새끼는, 가격은 고사하고 종금의 목적으로는 삼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시 말해서 대단히 빠른 조기 번식(3월)

및 초기번식(4월)의 자손을 이 시기에 용이하게 구입할 수 있고, 종금으로는 유익한편이다. 초기 또 초기 번식한 새끼는 만기번식(晩期繁殖)의 새끼보다 성장발육 및 조령이 빨라 그 새의 초산기간이 1년이 빠를 수가 있다. 또 초산을 및 수정을 초산일 등이 비교적 우수하다.

예를들어 번식령이 평균 만 2년생이 되어야 산란하는 은계, 백한, 당산조, 산계, 뽕평 등의 조류도 위와 같이 조기번식의 새끼는 생후 만 2년이던 성조가 되어 충분히 유정난(有精卵)을 얻을수 있으며, 평균 만 1년만에 산란하는 금계, 황금계, 흰평, 긴꼬리평, 귀평 같은 종류도 늦게 번식한 새끼는 번식율이 극히 저조하거나 심하면 산란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유추를 구입하려면 6, 7월경에 자립할수 있는 새끼를 입수하면 다음해의 봄에 산란을 정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권장할 구입시기이다.

(3) 중추(中雛)

생후 90일령에서 180일령에 속하는 새로서 사람으로 말하면 고교시절에 해당한다. 분양이나 구입관계는 빨라도 이시기부터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초생추 및 유추시기의 분양 운운은 어쨌든 종금선택으로서 빠른감이 있는 것이다. 물론 수요보다 생산부족량의 역비례적인 이유가 있겠고, 구입자의 초조한 마음과 호기심에 의해서 조기분양이 발생하겠지만 귀하고 비싼 희귀조의 새끼를 사소한 감정이나 기분의 대상에서 희생시키는 비생산적인 일은 애조가의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할줄 믿는다. 그럼으로 중추가 가격적으로나 건강적으로도 무난한 시기라 보겠다. 이때 쫄의 새는 공작 귀평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암수감별이 정확히 구분된다. 그뿐아니라 성장율(成長率), 건강도(健康度), 체형(體形)등 종금(種禽)의 적부유평(適否輪廓)이 거이 결정지어 지므로 구입자의 입장로서는 유익한 것이다.

사육관리 및 수송관계도 식육이 왕성하고 항병력이 강하여 다소의 환경변화 스트레스가 있어도 상관없는 좋은 시기다.

협성가축약품공사

- ◎ 가 축 예 방 약
- ◎ 치 료 제
- ◎ 소 득 약
- ◎ 사 료 첨 가 제
- ◎ 기타국내외약품

총판

- ★ 가축질병상담
- ★ 지방주문환영

TEL 주간 97-8779
야간 96-9231

서울 능대문구 제기동 654
청량리 오스카극장 앞,
현일은행 청량리지점 옆

